

# 광주 외국인 1만3000여명 코로나 전수검사

## 남부대 임시선별진료소가보니

18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국제교류원 앞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들 얼굴에는 긴장감과 걱정스런 표정이 묻어났다.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은 최근 광주에서 남부대와 호남대를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유학생 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부라부라 남부대에 선별진료소를 차렸다.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등 1만3000여명을 전수조사해 혹시 모를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숙사 로비와 숙소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눈발 속에 바람에 날아가는 선별진료소를 고정시키느라 안간힘을 쓰는 방역 인력들을 불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선별진료소 설치가 끝나자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밖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들 확진자들과의 직·간접 접촉이 있었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는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베트남 출신 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늘 밤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친구들에게 묻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부대 기숙사에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 128명과 우즈베키스탄, 태국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한국인 유학생까지 합치면 대략 150여명 수준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생은 "9.91㎡(3평) 정도의 기숙사 방에 2~3명이 모여 생활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숙사 내부를 돌아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적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학생 등 외국인 13명 확진 비상...기숙사 밀집생활에 방역 사각지대 일부 학생 마스크 안쓰고 다니고 검사 후 자가격리 수칙도 안지켜 '불안' 고려인마을 등 선별진료소 운영...외국인노동자 연락체계 없어 차질 우려

이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2~3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숙사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검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연, 검사 받고 바로 기숙사를 벗어난 외국인들도 보였다.

또 유학생들을 검사할 선별진료소는 남부대에 마련됐지만 5455명에 이르는 고려인들을 위한 임시선별진료소는 월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지만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만 운영키로 했다.

같은 이유로 하남·평동 산단 등에서 근무하는 50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검사는 목

·금요일이나 진행키로 하는 등 전수 검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모두 광산구보건소 관할 지역이라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광산구도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유학생들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될 지,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제대로 따라줄 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8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국제교류원 앞에 세워진 '외국인 선제적 검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영산강 죽산보 해체 확정...8년만에 사라진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승촌보는 상시 개방

영산강 죽산보가 건설 8년 만에 해체된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보(泐)별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

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라는 지침도 추가했다.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 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면서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 2019년 2월 영산강·금강 5개 보의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를 발표하자 2년 만에 보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주민·지자체·관련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미래 세대에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물려줄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환경청과 환경단체 안팎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날 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보 처리 의견을 존중기로 합의하면서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앞서, 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라는 단일

안을 최종 의결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를 위한 단서조항을 조속히 해결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죽산보 해체 시기가 막연한데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모아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의 바탕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택배 총파업 예고 설 물류대란 우려

## 과로 예방 대책 마련 촉구

택배 노동자들이 설명절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 과로로 인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해 설 명절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설 특수를 앞두고 배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명확하다"면서 "실질적 대책과 분류작업 인력을 총원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선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배송과 집화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면 현재 전체 노동시간에 약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일 광주 CJ대한통운 송암터미널 앞을 비롯,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전국 택배노조는 20~2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B씨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며 접근, 자신의 차에 태우고 B씨 원룸 앞으로 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물 한 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먹든지 하자"며 추근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늦춰달라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4개월의 시간을 찾지만 이 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